

광주, 아시아 스포츠 수도를 꿈꾸자!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KIA타이거즈(이하 타이거즈)가 우승했다. 타이거즈는 7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리게 됐다. 타이거즈는 성적 뿐 아니라 관중 몰이에도 성공했다.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최다 만원 관중과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 기록을 경신한데 이어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올해 광주의 거리는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는 날과 그렇지 않는 날로 구분될 만큼 팬들의 열정과 함성으로 뜨거웠다.

타이거즈가 정규리그에서 우승하던 날 저녁, 프로축구 광주FC는 창단 후 처음 출전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첫승을 거뒀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J리그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7대 3으로 격파하며 완벽한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내내 감동과 기쁨의 도가니였고, 경기가 끝나도 그 여운은 계속됐다.

광주에는 여자프로배구 10년만에 신생 구단 창단으로 주목을 받았던 ‘AI페퍼스’도 있다. 비록 지난 3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슬럼프를 겪었지만, 현역 시절 화려한 실력을 보여준 선수 출신 감독과 코치를 새롭게 기용하고 구단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팀 스포츠뿐만이 아니다.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군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틀룩의 여왕’ 안세영 선수도 광주체육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양궁에는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에 올랐던 안산 선수도 있고, 광주여대와 광주시청 소속 선수를 거쳐 광주여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기보배 선수도 있다. 남자 100m 육상 대한민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영 선수도 광주시청 소속이다.

인물 뿐만 아니라 광주는 유독 스포츠 이슈가 많은 도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룬 곳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이고, 2015년에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단일 종목으로는 두 번째로 참가국이 많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도에 광주에서 있었고, 내년에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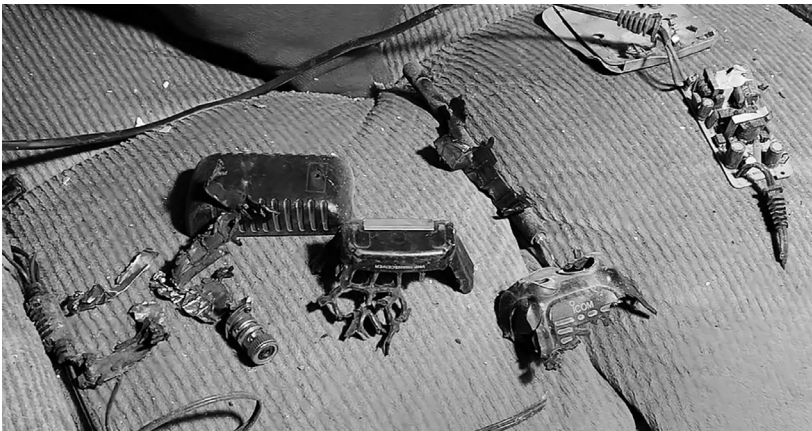
영국 스포츠마케팅 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국제 스포츠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7위, 아시아 6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는 지금까지 스포츠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도시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국가 내 도시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스포츠 수도로 도약하는 비전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스포츠 산업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로컬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는 상상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다.

실제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스포츠 관광이 전 세계 관광 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2023~2030년 사이에는 1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부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자리잡은 LA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5대 스포츠 리그에 8개 팀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라는 장점을 내세워 2028년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다. LA 관광청은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스포츠 경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3일간 둘러보는 LA 스포츠 명소’와 ‘스포츠 팬을 위한 LA 미식 투어 3일’과 같은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런던 역시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 스포츠 수도 런던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용을 추구하는 스포츠 정책으로 활동적인 런던시민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사회적 진보를 위해 더불어 같이 전진하는 일, 이 또한 광주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스포츠의 묘미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노잼도시 광주의 위기를 끝잼도시의 기회로 만들어보자. 가자! 아시아 스포츠 수도, 광주로!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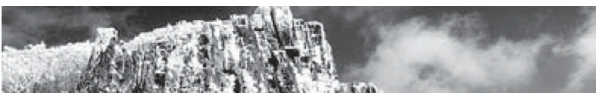
18일(현지시각) 레바논 동부 발백의 한 주택에서 폭발한 무전기 잔해가 소파에 놓여 있다. 지난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친 데 이어 18일에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전기가 레바논 곳곳에서 폭발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AP/뉴시스

서석대

“우리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11시 20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입장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했다. 9·19평양공동선언. 그 해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 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간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4번째 정상회담이 만든 기적이었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당장 1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시작된 평양공동선언은 2조에서 교류와 협력 증대를 담았고 3조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로 이어져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기로 한 4조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5조도 국민들에게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각인시켰다. 마지막 6조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명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엄청난 진전’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얻으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북·미간 의견차였다. 그러다 보니 남·북 경제협력과 외국 투자자의 시작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은 시작부터 막혔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으로 종전선언 등 대부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은 19~20일 광주와 전남에서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UN의 대북 제재와 북·미 대화의 한계, 국내·외 정치적 여건 등으로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미래지향적 한반도를 꿈꿨던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는 크다. 신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날의 합의는 정녕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엄청난 진전’이라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평가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그 엄청난 진전을 불과 6년만에 ‘엄청난 퇴보’로 전락시켜 버린 한반도의 현실이 착잡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민간 군·공항 이전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

‘불 꺼진 공항’ 오명 벗어나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역내 갈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지역의 현안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또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첫 출발이다. 지역사회와 전체적인 국가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려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 함께 시·도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당장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회와 전남도의 간담회가 열린 19일 일부 무안 주민들이 ‘군공항의 일방적 추진은 상생이 아닌 살생’이라고 반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무안군민을 설득하고 전남도민들이 공감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선 광주시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이전 예정 후보지인 무안 망운·운남면 주민 등이 원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음 등 피

해 당사자로서 군공항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배려다.

개항 17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은 무늬만 국제공항일뿐 ‘불 꺼진 공항’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스케줄도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만 하루 1~2차례, 국제선도 비엠헤트항공의 달랏과 제주항공의 연길, 진에어의 울란바토르 등 주 20여 편 내외가 전부다. 다른 공항과 달리 KTX가 연결될 공항을 방치한다는 것도 국가적 인프라를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지금 공항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잘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 마지막 기회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관문 공항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무안군의 주장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무안군과 주민들의 열린 변화를 촉구한다. 김영록 지사의 조언처럼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공항간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퇴생 증가로 위기 몰린 지역 국립대

최근 5년간 1만명 넘어

학생인구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자퇴생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새 무려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지난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광주·전남지역 내 5개 국립대의 자퇴생은 총 1만 2622명에 달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는 자퇴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대에서는 2019년 978명, 2020년 1005명, 2021년 1066명, 2022년 1078명, 2023년 1168명으로 5년간 5295명이 자퇴했다. 전남대는 자퇴생 수가 가장 많은 강원대와 경북대에 이어 세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목포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00여 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으며, 2022년에는 예년보다 300명 증가한 952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3년 자퇴생 수는 604명이다. 순천대에서도 매년 60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

5년간 2889명의 자퇴생 수를 기록했다.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목포해양대와 광주교육대의 경우 자퇴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목포해양대에서는 5년간 918명이 자퇴했으며, 광주교육대에서는 143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반면 수도권 5개 주요 대학의 자퇴생 수는 5499명으로,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자퇴생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의 자퇴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꼽힌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취업 기회가 적고, 학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지역전형을 확대하고 수시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 대학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급선무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때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